

어린이정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넓은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어린이정원〉은 20~40개월의 아기와 엄마가 함께 하는 유아신앙교육 프로그램이다. 24개월 이상의 유아들은 이제 엄마와 노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엄마 또한 아이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역부족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의 유아들에게 가정에서 더 넓은 사회기관으로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의 신앙적·정서적 기초를 세우는 아주 적절한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엄마(주양육자)와의 신뢰의 형성은 신앙과 세계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기초가 다져지게 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주님의교회 〈어린이정원〉은 ‘쉽’이다. ‘엄마랑 아기랑’ 하나님 품에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쉽’을 얻는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을 얻듯(시 23:3), 〈어린이정원〉에서 ‘엄마랑 아기랑’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을 받는다. 〈어린이정원〉에서 엄마와 아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아름다운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용기 있게 뒀 수 있기를 바란다. 전은숙 전도사

의료선교부 MT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감격의 시간



2008년 5월 11일 의료선교부에서는 MT를 가졌다. 매일 둘째 주 하남 외국인 비전 센터에서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진료를 한다. 진료를 하며 우리들은 한가지 사명으로 성심껏 즐겁게 외국인들을 섬긴다. 정성을 다해 노동자 가족을 치료한 후 MT 장소인 용인 대우 개발원으로 떠났다. 가는 길이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사명과 꿈을 나누라고 허락한 시간이라 생각하니 막히는 게 오히려 감사했다. 저녁식사 후 윤 영수 선교사가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기도하며 서로를 소개하고 우리 의료선교부가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빙고게임으로 서로의 이름도 기억하는 시간도 가졌고 의료선교부와 의료선교를 위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원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다. 삼삼오오 늦게까지 선교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이튿날 정희성 목사의 인도로 산상 기도회를 가졌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감격의 시간이었다. 국내외 선교의 현황과 올해 선교계획 의료선교부의 응급실 운영계획에 대해 말을 듣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키우는 은혜를 갖게되었다.우리는 MT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의료 선교부의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과 동료의식을 갖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내년을 기약하면서 박원호 담임목사의 기도로 아쉬운 작별을 했다. 최석주 집사 (5-2)



신병교육대 장병진중 세례예식이 5월 18일 (일)오후 7시에 28사단 만남의 교회에서 있었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많은 훈련병들이 참석을 하였다. 영접기도를 하는 시간과 세례예식이 치루어지고 주님을 받아드리는 순간은 강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듯 기침소리 하나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순수함을 보았다. 배 헌성 목사는 병영생활을 하며 자기 중심적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생활을 하고 세상을 절망으로 보지말고 세상을 사랑하며 군 생활을 마치기를 기도했다. 신 형섭기자

생명. 사랑. 나눔.

허윤정

헌혈은

생명의 나눔이자

사랑의 연결입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이자 생명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즐함울 기자/기사모집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함즐함울에서는 많은 재능을 필요로 하지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열정을 가진 교우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사역 좋아하실 사역에 적극적 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신형섭안주집사 (019.628.7957)

헌혈!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

-예수님처럼 용기있는 발걸음 내딛기를-



“채혈규정이 엄격하여 최소 500여명의 헌혈 지원자 필요, 현재는 아직 못미처”

본교회는 오늘(5월 25일) 전 교인이 통참하는 생명나누기 행사의 일환으로 “헌혈”을 실시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차레로 나누어 자원봉사자 86명의 안내를 받아 본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청 유무와 상관없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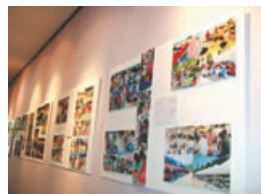
본 교회가 이 행사에서 목표한 헌혈 참여인원은 최소 200여 명이다. 200여명이 온전한 헌혈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500여명의 헌혈지원자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채혈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규정에 맞는 피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본 교회 헌혈희망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혈행사의 간사역을 맡은 주선영 전도사는 “헌혈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행동으로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몸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 생명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꼭 필요할 수 있

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으셨듯이, 헌혈을 위한 용기있는 발걸음을 내딛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며 본교회 성도들에게 고귀한 사랑의 헌혈행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하태원 기자

무지개축제 사진전 개최(5/25~6월1일)



무지개축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공동체 생활의 체험을 통해 즐거운 기억을 되새기고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하며 무지개사진관(주님의 양떼들) 사진을 교우들에게 되돌려 주는 시간을 갖는다.

전사: 5월25일~6월1일
문의: 고석창 집사 016.9211.4978
*6월1일 3부예배후 본인 사진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로 템 나 무

감사의 식류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옮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50:23)

식구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별 반찬 없이도 맛있게 식사를 했다.
편안하게 누워서 보내는 저녁시간이다.

이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까.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꺼운 식류의 껍질 속에
얼마나 많은 식류알이 들어있는가.

그렇게 나의 일상의 껍질 속에
감사의 식류알이 알알이 박혀 있다.

하루의 끝에서
하나 하나 세어본다.
감사한 일들을.

주님!
제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새가족 환영의 날 (반갑습니다!)



5월18일 주일오후3시~5시까지 중예배실과 지하식당에서 장년 새가족 140여 성도들을 초대하여 새가족환영의날 행사를 열었다. 교구별로 구역식구들과 같이 식사 공동체를 나누며 즐거운 애기를 나누었다



2부 행사는 새신자와 교우들간에 울타리를 허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6구역의 축복송과 새가족의 간증 등 여러 순서와 박 원호 담임목사와 만남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석자들이 손에 손잡고 인사와 찬양을 함께 부른 후 담임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은혜롭게 마쳤다



모든 참석자들은 풍선게임을 하며 많은 수의 풍선을 많이 못 모았더라도 서로 나누듯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며 교회를 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들으며 진정 주님의교회 교우가 됨을 느꼈다 한다.
(최 사라기자)

어르신잔치

5월16일(금요일) 오후3시 주님의교회 하프타임 사역팀에서 70세이상 교인 및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130여분을 모시고 1층 소강당(애니엘리스홀)에서 어르신 잔치를 열었다.

1부는 박원호 담임목사가 지역과 교회, 세상을 위해 수고해오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씀하셨다. 2부공연은 주님의교회 한국무용단과 국보실버예술단이 연이어 공연하여 참석하신 어르신들께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다. 3부는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하프타임사역팀이 준비한 오락을 즐기며 선물들을 어르신들께 전해 드렸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교마다와 내년에도 다시 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서로 기도하자고 약속했다. 어르신잔치 식사는 은혜부페에서 제공하였다.

홍성호 집사(8-10)



2008

단기선교 팀원모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모집마감일: 6월 15일 (주일) 까지

*함께 할 여류 단기선교를 가실 분은 단기선교팀장인 이희숙집사(018.281.5728)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행복한구역모임-안나2구역	3면
주차봉사를 하며	3면
새가족환영, 어르신잔치	4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17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금 화복의 직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 없이는 어떤 지식이 나 기술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진실되게 말씀드리자면 화복의 직책을 맡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 사태 바로 그 전에 일어난 미얀마의 태풍 사이클론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로 인해 고통했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명이 아니라 수만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인간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일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그 어떤 설명이나 해석도 모두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화복의 직책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화복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도, 반목도, 절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복의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화복케 하는 축복과 사명을 맡았기에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 사태는 하나님과의 화복이 깨어졌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자연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심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 믿지 않기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고통하십니다. 다만 서로 간에 화복이 없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사태는 당연히 함께 살아야할 인간과 자연이 화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은 철저히 인간을 위한 이용 대상이었습니다. 자연은 이웃도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용할 물건입니다. 입술로는 자연을 말해도 실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이제 더 이상 자연이 우리의 동반자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할 이웃이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근본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 분과 제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의 깊은 회개와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사태는 인간 모두가 만들어낸 사태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독선이 만들어낸 사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변화 없이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의 재앙은 계속될 것이고 그 빈도나 강도에 있어서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태에서 하나님이 깊이 고통하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늘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는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금 화복의 직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 없이는 어떤 지식이 나 기술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진실되게 말씀드리자면 화복의 직책을 맡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 온전히 화복의 직책을 감당해야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길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서 화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의 화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과정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아십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주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아울러 가장 무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행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일평생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제임스 로더라는 교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분은 성령의 역사하는 과정을 연구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연구하시는 분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은 일평생 성령의 역사하는 과정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에 법칙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발견하면서 이 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성령이 주관하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 법칙을 따르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자연, 음악, 미술, 사람이 그러합니다. 체계는 이 가르침이 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데에는 4 단계가 있습니다. 갈등의 단계, 고민하고 기다리는 단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단계, 마지막에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갈등, 고민하고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해석의 4단계.

먼저 성령이 역사할 때 갈등이 찾아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다가오는 갈등일 수도 있고, 관계로 인해 다가오는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시작이요 기회입니다. 사람의 변화도 신앙의 변화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아하'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들리기도 하고 주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들리기도 합니다. 이 순간은 단지 지식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깨달음의 단계요 확신으로 다가오는 단계입니다.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기뻐날 뿔 것입니다. 실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릴 뿐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 감각과 헌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도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화복의 사명

이번 미얀마 사태, 중국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수 없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도울 수도, 돈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된 심령으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기술의 아픔도, 지식의 아픔도 아니라 속사람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화복의 직책을 감당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치유하는 길이요, 사람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화복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축복들은 고통하는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축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주차봉사들하며

주차안내가 필요없는 자율적 주차 문화정착을 바라며

주님의교회에 새신자로 참석을 하며 구역예배에 자연스럽게 참석을 하면서 구역식구의 권유와 도움으로 주차안내봉사를 하게 되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주일만 지키던 내가 예배시간외 주차봉사를 하는 것이 힘들었다. 다리도 아프고 주일에 나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날로 마음을 정하니 교회에서 주차봉사로 오후 늦게까지 있어도 마음이 피곤하지 않았다. 봉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일 내내 방바닥만 뒹굴고 있었을 것이다.

주차안내부는 성도들의 주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원활 하도록 돕고 봉사를 통하여 지체들 교우가 증가중이고 인근 잠실아파트 입주 시작되면 더욱 많은 교우가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천시에는 혼잡하여 교우들과 주차안내 봉사자들과 실랑이가 자주 일어난다. 이럴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학교주변 도로 외에 종합운동장 야구장 주차장, 송파탄천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요일, 토요일 12단계 성경공부 시간에는 평일이라 운동장을 사용을 못해 주차가 쉽지 않다. 주차봉사자들이 엉뚱하게 안내하였거나 말이 거칠어서 은혜롭지 못한 주일예배를 드린 교우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사과를 드린다.“



간에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합니다. 주방부, 봉사부 등과 함께 힘든 부서로 알려져 있지만 내게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봉사로 여겨져 주님이 부르지 않는 한 감히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주차안내부원은 30여명 등록하여 매주 20-25명 봉사를 한다. 봉사시간은 조회시간에 참석하여 주의사향과 기도로 시작하며 3부예배가 끝나는 1시까지 봉사를 한다.

봉사하면서 본의 아니게, 교우들과 부딪힐때도 있다. 알고보면 서로가 옳은 얘기인데 화나고 의견이 충돌되면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봉사하는 마음이 뒷걸음치는 나 자신이 미워질 때가 많다. 아직도 매주 1-2번은 성도들과 부딪히는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교회 주차공간은 운동장 350여대, 분당, 학교교사 주변에 350여대 주차를 하고 있다. 교회 밖에 학교주변도로에 200여대 주차 가능하나 인근 남포교회 교우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성도수가 7천명이 넘는다 하니 늦게오면 주차도 쉽지않다. (지금도 꾸준히

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 그렇지만 교회를 출석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지체로 여겨주심에 감사드린다.

주차안내부에서는 주차안내가 필요없는 교회가 되어가며 자율적인 주차문화의 정착을 바란다.

이러한 주차문화로 주님의 교회가 또 하나의 진보적인 일을 이루었으면 한다.

교회가 학교 내에 있어 운동장등에 주차를 하기에는 모양이 좋지 않으며 정신확원 교사들로부터 자주 민원이 발생한다.

주일에는 대중교통(장애회, 노약자: 70세이상, 초등학교 미만 제외)을 이용하여 주차안내원이 필요없는 모범적이고 진보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항상 많은 교우들이 잘 이해해주시고 잘 주차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여정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양보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모두 다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회오리처럼 성장과 기쁨이 있기를 기원한다. 샬롬! 이제덕 집사(8-2)

성도들의이야기



성령강림절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

실제로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강림절까지의 50일 동안 부활의 완전한 기쁨 속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보내곤 하였는데, 이 절기는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 더 오래된 교회의 절기로 주후 3세기까지 교회가 지켰던 유일한 연주기(Annual Cycle)의 절기였다. 흔히 오순절과 혼란스럽게 사용되기도 한 이 절기는 부활 후 50번째의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파스카(Pascha)절기'라고 불리어져 왔다.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의 50일 동안을 하나의 잔치같이, 혹은 하나의 큰 주일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곤 하였다. 즉 초대교인들에게 주일 이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부활절 뿐만 아니라 부활절 이후의 기쁨의 50일(The Great Fifty Days)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흔히 부활절기(Easteride)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는 것을 금하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성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3일 동안의 금식과 회개의 시간인 파스카 성삼일(Pascha Tridumm or Easter Tridumm)을 보낸 후, 초대교회는 부활절 전야(Easter Vigil)예배를 통해 부활의 신비(Paschal Mystery)를 선포하고 축하하곤 하였는데, 이날은 교회력 중에서 가장 기록한 날(the Feast of Feasts)로 여겨졌을 만큼 중요한 날이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거룩한 부활절을 시작으로 기쁨의 50일간의 부활절기가 시작되었는데,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후의 행적을 돌아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였다. 도마의 이야기(둘째 주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나누신 식탁에 대한 이야기(셋째 주일), 주님의 승천 이야기(40일째, 혹은 일곱 번째 주일) 등은 교회가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중요하게 다루어왔던 주제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의 절기는 50일째 날인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의 강림절(Pentecost)로 끝을 맺게 된다.



시간이 기다려지며 나를 위한

시간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신다.

한가지 바람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마땅히 쉬실 곳이 없어 여유를 가지고 주일 오후를 보낼 작은 처소가 있기를 원하셨다.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장미꽃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예쁘게 찍어주기를 바라는 소녀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 믿음의 어머님들이시다.

우리들 온 맘을 다해 어머님들을 사랑합니다.

신 형집기자

행복한 구역모임

안나 2구역을 찾아서...

소녀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어머님들

70세 이상 여성 어르신이 모여여있는 안나구역은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져있다. 어버이 달을 맞아 안나 2구역(6-24)을 찾았다.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30분에 지하 썬트네실에서 구역예배를 드린다. 비오는 날 이른 아침에 찾아간 썬트네실은 여러 어르신이 나오셔서 책상을 정리하며 세상 얘기를 나누고 계셨다.

구역장 이 기원 집사는 어르신들은 이른시간 10시에 나와서 기도와 인사로 친교를 나누며 어떤 구역보다도 출석률이 높다한다.

외도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의 준비와 부지런한 모습에 늘 존경하게 되며 예배를 드리고 공부할

때 집중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즐겁다 하며 많은 세월이 흐름 속에서도 외국어와 한문의 능통함까지 정치의 관심과 주일예배를 드리고 공금함에 여러 질문을 주시는 어머님들을 볼 때 나의 미래를 보며 나 자신 안나구역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한다고 한다.

돌보기도 안쓰시며 구역교제를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때는 성경의 많은 지식과 세상 식견에 많은 놀라움을 느꼈다.

1시간 30분 공부 후 지하식당에서 손수 만든 식사를 같이 나누며 어르신들은 구역 식구를 만나는